

‘함께 한 90년, 더 나아갈 100년’ 도약 다짐

전주상공회의소 창립 90주년 기념식 성료

전주상공회의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29일 라한호텔 전주 온고을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1935년 창립 이후 90년간 격동의 역사 속에서 지역 상공업 발전을 이끌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현장에는 상공인과 회원기업,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념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박희승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윤희태 완주군수,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과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 박영길 회장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전국적 관심을 입증했다.

김정태 회장은 기념사에서 “전주상공회의소는 일제강점기의 혼란한 시절에 태어나 산업화,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숏한 위기를 상공인과 함께 극복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더 큰 번영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에서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90년간 상공업의 구심점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 상공인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며 “다가올 100년은 더 큰 도약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상공인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행사에서는 도지사, 도의회 의장, 전주시장, 대한상의 회장 표창이 진행되었으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유공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는 지난 세월 지역 경제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상공인들의 노고를 기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비전전포식이 눈길을 끌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최고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위상 제고 △회원 중심의 경영서비스 지원 강화 △지역 사회와의 동반 성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상공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미래 100년’을 향한 새 출발을 약속했다.

오후에는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을 주제로,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두 연사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의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에서 내빈들의 축하도 잇달았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산업 대전환의 시대, 전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으며, 우범기 전주시장은 “1935년 일제강점기에 출범한 전주상공회의소가 곳곳이 지역을 지탱해왔다”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반경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윤희태 완주군수는 “기업인들의 헌신은 마치 전쟁과도 같다. 완주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위기 속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역은 바로 상공인들”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제2회 전북노사 화합가요제를 성대히 개최했다.

노사가 함께 웃고 노래한 화합의 한마당

전주상의, 제2회 전북노사화합가요제 개최

전주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제2회 전북노사화합가요제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전주상의 임의원과 도내 기업 근로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열띤 호응 속에 성료됐다.

창립 90주년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가요제는 전주상공회의소와 JTJ 전주방송이 공동 주최했다. 노사 간 벽을 허물고 하나 되어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 경제에 새로

운 에너지를 더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 20일 치러진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은 이날 본선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과 숨겨진 재능을 뽐냈다. 참가자들은 진심 어린 열정으로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내며,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노사 모두가 웃음과 감동을 나누는 화합의 무대를 만들어냈다.

행사 열기를 더한 것은 인기 가수들의 특별 무대였다. 최백호, 마야, 동물원, 라포엠 등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관객들은 가요제가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함께했다. /오상근기자

전북경진원 ‘호남권 IR 매칭

컨퍼런스’… 투자유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지역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진원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등 도내 산·학·연 9개 기관과 협력해 ‘호남권 IR 매칭 컨퍼런스’를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성장사다리 기업을 포함한 전북지역 유망기업 62개사가 참가하며, 파인파인베스트먼트, 스케일업파트너스, 캄벤처러브, 호남권 엔젤투자허브,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트리거투자파트너스, 오르카자산운용, SCUBE Lab, 킹고스프링 등 다양한 투자기관이 함께한다.

참가 기업들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IR 자료 제작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스피치 역량 강화 교육 △실전 투자유치 피칭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단계별 역량 강화와 투자성과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법인사업자 비대면 입출금 계좌 신규 프로세스 도입

전북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기업 인터넷뱅킹으로 개설 가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법인 고객의 금융 편의를 한층 강화한다.

전북은행은 오는 9월 30일부터 비대면 법인 입출금 계좌 신규 가입 프로세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도입된 법인 비대면 예·적금 가입 프로세스에 이어 두 번째 비대면 금융 서비스로, 그동안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법인 입·출금 계좌 개설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법인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련 서류 제출과 비대면 실명 확인을 마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상 상품은 JB 기업플러스 통장으로, 법인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우대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와 전북은행 및 타행 CD/ATM 출금 수수료, 입출금 내역 통지서비스(SMS) 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월 기준 평균잔액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고객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북은행은 신규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JB와 콕(Cup)! 선물이 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입출금통장에 월말 잔액·월 평균잔액 5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전북은행 기프트카드 10만원권(총 20명)을 제공한다.

순창군, ‘2025 기업인 간담회’ 개최

순창군과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9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과 공동으로 ‘2025년 순창군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순창군 농공단지 및 개별 입지 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9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기업 지원정책 홍보 △지역 인재 채용 및 정착 방안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책 마련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청,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R&D, 판로 개척, 인력 지원, 정책 자금 등 실질적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부처협업 프로젝트) △전북 선도기업 육성사업 △혁신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중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설명하며 지역 기업 성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안내했다. /오상근기자·순창=이양원기자

전북형 맞춤형 투자지원 성과 입증

바이오진흥원, NS 푸드 페스타 식품 스타트업서 수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2025년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흥원은 지원기업인 진스마트팜과 소이소프트바이옴이 지난 28일 익산시와 NS홈쇼핑 공동 주최로 열린 ‘NS 푸드 페스타 2025 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각각 창의상(1등)과 도전상(3등)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서류 심사와 예선을 통과한 6개 기업이 본선 무대에 올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겨뤘다. 그 결과 진스마트팜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상금 1,500만 원과 함께 NS홈쇼핑의 마케팅 지원 기회를 확보했으며, 소이소프트바이옴은 도전상을 수상해 700만 원의 상금과 후속 지원을 받게 됐다. 바이오진흥원은 올해 처음 전북지역



도와 함께 ‘2025년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식품 분야 창업기업 20개사를 선발해 성장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투자유치형’으로 선정된 10개 기업에는 기초 IR자료 제작부터 보완 컨설팅, 투자 역량 강화 교육 IR 라운드 참여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왔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